

자동차

Sector Issue Brief

2025. 3. 26

현대차 210억달러 대미투자: 불확실성의 끝이 보인다

Check Point

- 현대차그룹 210억달러 대미 투자
- 현지 생산 120만대까지 확대
- 점차 해소될 관세 리스크

| Analyst **이병근** | bglee@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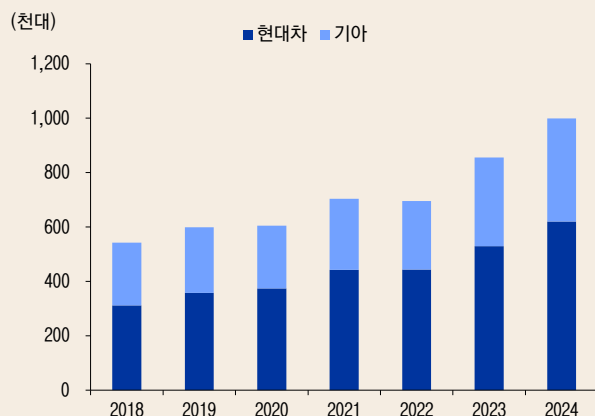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210억달러 대미 투자

- ▶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2)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 달러, 3)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를 제시했다.
- ▶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 ▶ 신공장 관련 내용은 없었으나, HMGMA 추가 증설을 통해 기존 30만대 Capa를 50만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 능력은 연간 70만대 수준에서 120만대 이상까지 확대될 것이다.
- ▶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로봇·AI 등 미국 기업과 협력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모셔널 등의 사업화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점차 해소될 관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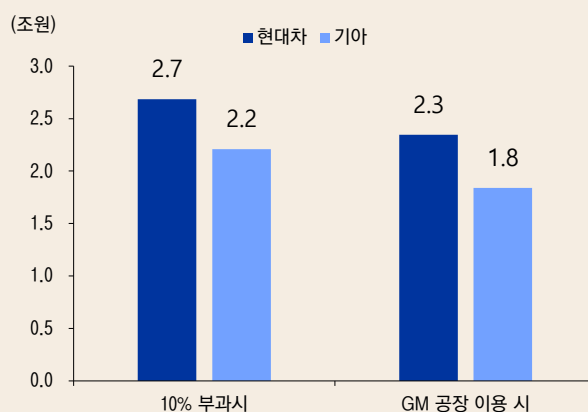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었다. 상호 관세 관련해서는 4월 2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 관세 발표는 이보다 빠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번 GM과의 글로벌 생산 기지 공유에 이어, 추가 증설을 통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시장 예상치보다 점차 줄어든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주가 반등이 완성차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그림1 현대차그룹 미국향 수출 대수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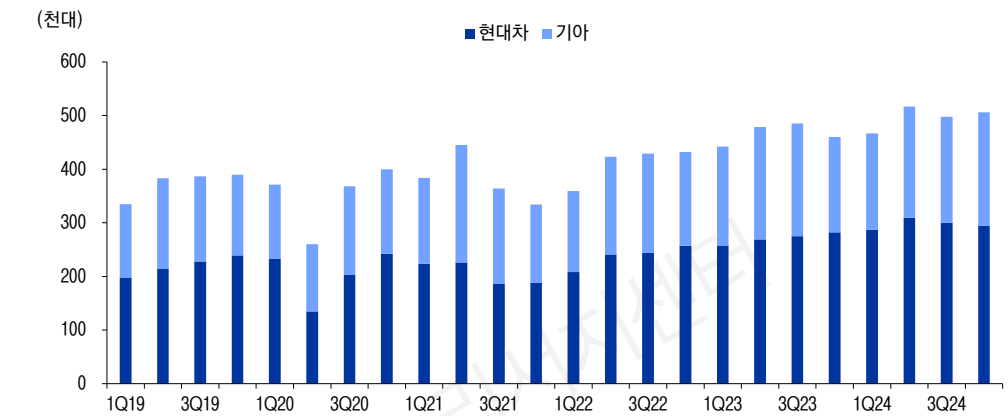
그림3 관세 부과 시 이익 감소 영향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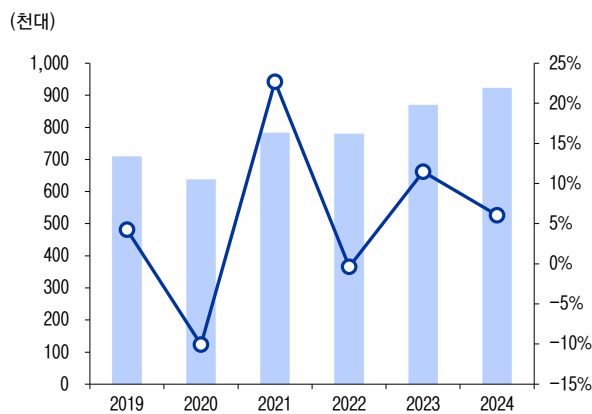
주: GM 미국 현지 공장에서 10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

그림5 현대차그룹 현지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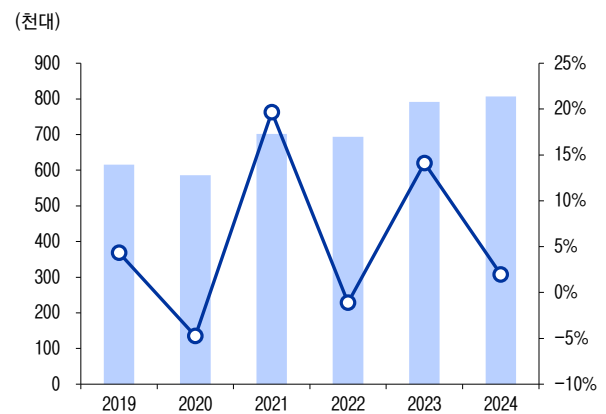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현대차 미국 소매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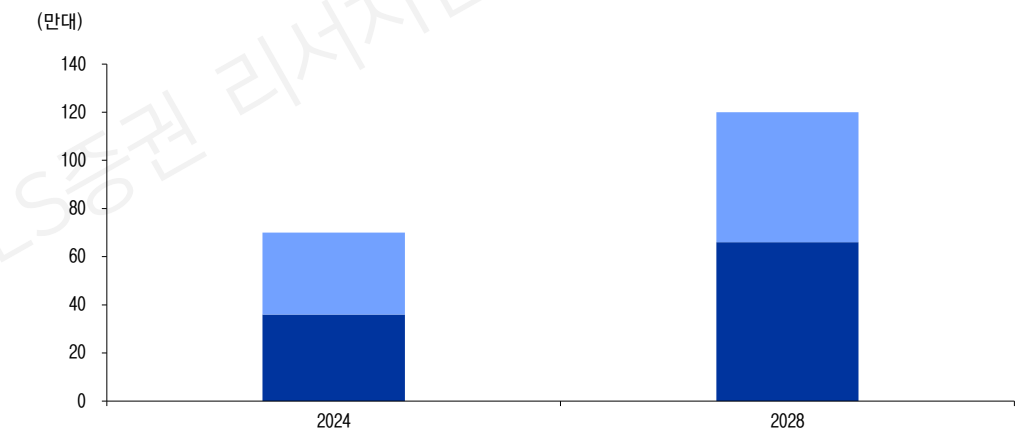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아 미국 소매 판매 추이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능력 120 만대까지 확장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